

# 순천 공무원 청와대 국민청원 공직사회 술렁

순천시 7급 공무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것은 물론 지역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26년차 7급 공무원이라고 실명을 밝힌 박경희씨는 “2011년 학교급식 전환 경식재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현 시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가 이 사업의 목적을 따르지 않아 부득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거론했다.

이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자 상사에게 정적이 왔다. 상사는 지원할 것을

## “부당지시 거부 인사 불이익” 게시판 글 올리자 직원들 “사실 달라... 다른 동료 사기 저하” 비난

요구했지만 끝내 지원하지 않았다”며 “이 일을 계기로 지난 2013년 감사과로 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보성군에서 지난 2004년 1월 7급으로 승진해 같은해 4월까지 배우자와 함께 순천시로 전입했고 8급으로 강임돼 ‘1년 이내에 승진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5년 2월 10개월도 되지

않아 7급으로 승진됐으며, 배우자는 8급으로 전입해 강임되지는 않은 채 8급으로 근무하다 2006년 3월 7급으로 승진하는 혜택을 누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감사과 발령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승진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감사, 총무, 기획과)로의 이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어 박씨의 언니도 7급 12년만에

2015년도에 6급으로 승진했으며, 7급이었던 박씨의 배우자도 감사과에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11년만(2017년 11월까지)에 6급으로 승진하는 혜택을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5개월 가량을 질병으로 휴직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근무했지만, 소속 실국에서는 높은 점수로 근무평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질병 휴가를(2016년, 2017년, 2018년 2월)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는 상위급 근무평가를 받았

다. 이에 A 직원은 “승진 시기에 휴직을 하게 되면 근무성적 관리가 안 돼 승진 순위에서 밀려 날 수밖에 없다”며 “13년 이상 7급 공무원들이 현재까지도 상당 수 있고 타 지자체도 비슷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 직원은 “평소 업무를 기간제 직원에게 떠넘기고 동료 직원과 상사와는 불통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7급 공채로 입사해 17년 만에 6급 승진된 공직자도 있다”며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다”고 비난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 주목! 이사람



**유근기 곡성**  
군수는 15일 오후 4시 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열리는 제8기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한다.



**박병종 고흥**  
군수는 15일 오후 2시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리는 평창동계패럴림픽 3월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 참석한다.



**송경일 전라남도 동부지역**  
본부장은 15일 여수시에서 열리는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대응전략마련 심포지엄에 참석한다.

### 곡성 섬진강도개비마을 4년 연속 생생문화제 선정

(새섬진강도개비마을이 4년 연속 생생문화제 사업에 선정돼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14일 (새섬진강도개비마을에 따르면 ‘생생문화제 사업’은 지역 문화제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콘텐츠로 개발해 지역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새섬진강도개비마을에서 실시되는 생생문화제 프로그램은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제’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된다.

생생문화제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21회 진행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모집(40명)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새섬진강도개비마을(061-363-2953)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한정길 기자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여수 010-8648-1236
- 광양 010-3622-9898
- 순천 010-2547-7890
- 구례 010-5431-4006
- 곡성 010-6764-6100
- 고흥 010-9151-2828
- 보성 010-4633-1790

## 화재 골든타임 확보 ‘안전여수’ 조성

### 6월까지 소방차 진입 어려운 취약지역 교통환경 개선

여수시가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교통환경 개선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첫 개선지역은 1,200여 개의 상가 밀집한 학동상가 일원이다. 현재 학동상가 일원은 상가 이용객 등의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여수시는 우선 상가 내 도로를 전면 재

포장한 후 주도로는 중앙선을 설치하고 가장자리에 보행자 통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도로는 긴급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여수경찰서와 협의 후 한쪽 면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1월 여수경찰서·여수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상인연합회 등으로 교통환경 개선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개선이 필요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174곳을 선정하고 사업순

선정을 위한 합동 소방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소방기동훈련 결과 교통환경 개선이 긴급한 지역으로는 학동상가를 비롯해 여천부영3차 일원, 문수주택단지 등이 결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국가시설 방호태세 점검 우수기관 선정 수상 영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13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18년 광주전남 지방통합방위회의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통합방위본부에서 주관한 전국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은 설명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중요시설인 여수광양항의 완벽한 방호태세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 민·관·군·경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방호인력의 실질적인 교육훈련, 보안울타리 개선 추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배병준 부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가중요시설 방호의 중요성을 재



인식하고, 방호태세 격상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국가안보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표창과 함께 받은 포상금 200만원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사용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키로 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고흥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기 위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장소를 찾아 캠페인을 전개했다.

### 고흥 복지사각지대 발굴... 1만여명 지원

고흥군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 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해 1만260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공적급여 및 민간자원을 연계했다고 14일 밝혔다.

고흥군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연금 등 1,701명의 공적급여 신청을 도왔으며, 8,140명에게는 연말 김장김치와 설을 맞아 기탁된 백미, 생필품, 식품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전기점검, 이마용·청소 서비스 등 자원봉사 활동 등 민간자원을 연계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특히 질병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된 자녀 3명을 둔 30대 부부 가구를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긴급생계비, 아동의료서비스,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과 민간 후원금 연계 등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해 줬다.

고흥군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 찾기’를 위해 읍면 찾아가는 방문교육,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장소를 찾아 캠페인을 추진했다.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소외계층과 복지지원 발굴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고흥=진중언 기자

### 보성 농특산물 판로 확보 위해 판촉 활동

보성군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다양한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안심 유통망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4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1억7,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 운영, 박람회 참가, 우수 농특산물 수출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보성군은 지난 8일부터 4일간 일산 킨

텍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에서 보성녹차 무로시음회와 차 관련제품을 비롯한 녹차 미인보살상, 산야초 등 보성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보성군은 앞으로 고객 중심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 운영 등 농가수도 보성의 농특산물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성=선상희 기자

### 클릭! 내고장 소식



#### 해남 삼산파출소 소방교육

해남경찰서 삼산파출소는 최근 대항사 1주차장에서 해남소방서 전문강사를 초빙, 관내 숙박업소 업주, 자율방범대, 이장단, 의용소방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사용 및 관리,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및 대피법 등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대항사 지구 숙박업소 업주 유모씨(52)는 “최근 제천, 밀양 화재 사건으로 화재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는데 파출소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시켜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 영광경찰 ‘좋은 하루’ 카페 개소

영광경찰서가 최근 청사 본관에 카페를 열었다. 카페 ‘좋은 하루’는 경찰서 내 유휴공간을 만들어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답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좋은 하루’는 영광경찰서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지어진 이름이다.

문병훈 서장은 “좋은 하루 카페 개소가 현장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곽승훈 기자



#### 광양 옥곡면 백양마을회관 준공

광양시는 최근 옥곡면 백양마을회관에서 백양마을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그동안 주민들이 이용했던 기존의 마을회관은 30여 년 전에 건립된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누수가 발생했다.

광양시는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자부담을 포함한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연면적 31.74㎡, 지상 1층 규모의 마을회관을 건립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 여수 한국남동발전 후원금 전달

미평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와 함께 ‘두드림(Do Dream)학교’를 신설·운영한다.

두드림 학교는 60세 이상 무학력자의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번 사업을 위해 300만원을 지원, 지난 13일 미평복지관에서 대상자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남동발전은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